

오이 주산지의 잠재력과 경쟁력

이유진, 정재원, 박해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e-mail: yjl927@korea.kr, jwjeong1015@korea.kr, god05242@korea.kr

Potential and Competitiveness of Cucumber Main Producing Area

Yujin Lee, Jaewon Jeong, Park, Haewon

Farm &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요약

본 연구는 오이 주산지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분석한다. 먼저 오이 주산지를 식별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특화계수(Location Quotient Index; LQI)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식별된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성장률시차 분석법(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을 활용한 지수를 도출한다. 분석에는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의 199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단위의 자료를 활용한다. 특·광역시와 그밖에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특화계수를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적으로 LQI값이 1 이상인 지역은 총 30개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군위군, 칠곡군, 창녕군으로 이 두 요인의 합으로 나타내는 총 시차를 구할 수 있다. 세 결과값의 부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오이를 성장, 경쟁, 잠재, 정체, 사양작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성장률시차분석결과 오이가 경쟁작목인 지역은 세종시, 의정부시, 안양시, 양주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천안시로 주산지 3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해당됐다. 이 지역들은 잠재력은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경쟁력이 더 큰 양(+)의 값을 가지면서 총 시차가 양(+)의 값을 나타냈다. 나머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광주시, 춘천시, 공주시, 부여군,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군위군, 칠곡군, 창녕군 22개의 지역은 오이 사양작목으로 분류되었다. 오이가 사양작목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 잠재력과 경쟁력이 음(-)의 값을 가지면서 총 시차 역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요약하면, 오이 전국 재배면적은 1995년 4,508ha에서 2020년 1,854ha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요 산지 대부분에서 오이가 사양작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쟁작목으로 분류된 8개의 지역은 잠재력을, 사양작목으로 분류된 22개의 지역은 잠재력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오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과제번호: PJ014921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